



갈보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다음 주일은 2017년 단기선교 보고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일정 소개, 간증, 영상).
2. 갈보리 성경통독 150일 계획 이번 주 범위는 요한복음 5장-로마서 11장까지입니다. 이제 통독하는 분량이 조금씩 줄어 들고 있으며 약 3주 후면 전체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3. 처음 온 성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교회 적응에 도와주시기 바라며 공동체 예배와 선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4. 창립주일을 위해 퍼포먼스, 먹거리 준비, 칼럼집, 꽃꽂이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 권사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 느헤미야 실에서 있습니다. 4 남선교회 회원들은 외조를 부탁 드립니다.
6. 지난 주에 편집 발간한 갈보리 컬럼 모음 3집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7. 새 교우 등록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상각, 허영순 집사, 161 Arthur St Onehunga Ph 200-5676, 020-477-0730, 3 남녀 선교회, 루마니아 공동체
8.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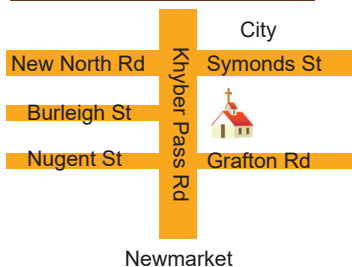
2017년 7월 23일 주일



2017년 표어 · '다음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신6:4-9)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 11:20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주일 2부예배	주일 PM 1:00	유 아 부	주일 PM 1:00
청년모임	주일 PM 3:00	아 동 부	주일 PM 1:00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청소년부	주일 PM 1:00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담임목사: 이태한

021-968-388 LTH-07@calvary.org.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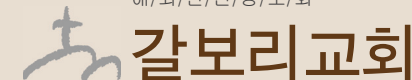
부목사: 이성철

021-563-634 logosid@hanmail.net

부목사: 박태신

021-077-8382 nuggy308@hanmail.net

해/외/한/인/장/로/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예배 안내

주일 2부 예배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84:10-11
◎ 찬 송	전능왕 오셔서 10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285장
대 표 기 도	손조훈 집사
성 경 봉 독	로마서 12:1
찬양대 찬양	하나님의 외아들을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거룩한 산제물/이태한 목사
찬 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이태한 목사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청년 모임 오후 3시

성경공부
기도 / 남수민 자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김영옥권사
성경봉독	에스더 4:1-14
설 교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 /이태한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송	496장
주 기 도	다같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7월 교회일지

바누아투 선교: 6월 27일(화) - 7월 5일(수)
 금요저녁기도회: 7월 7일(금요일)
 창립주일: 7월 16일(주일)
 선교보고주일: 7월 30일(주일)

7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정덕수/이재홍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한누리 집사
 다음 주일: 정관영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조주찬 형제
 8월 2일 수요: 김현주 권사
 8월 2일 애찬: 최희숙 집사
 8월 6일 주일: 현석호 장로
 8월 6일 청년부: 소정훈 자매

금주의 기도제목

1. 복음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2.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영안을 가지는 성도로, 삶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공립학교의 성경 교육 폐지 주장과 마약 합법화가 철회되어 영육으로 강건한 뉴질랜드가 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터키 이스탄불 정빌립 선교사 소식입니다.

아래 소식은 터키 공동체 인도자 현석호 장로님이 이스탄불 정빌립 선교사에게 약간의 물품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신입니다.

귀하신 일에 여념이 없으신 현석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이슬람의 성월(이슬람력9월, 라마단-주간금식기간)을 마무리하는 명절(쉐케르바이람 6월 24~27)이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23일)에 어느 곳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소포가 왔다는 바코드가 적혀 있는 한 장의 종이를 받았는데 자세히 살펴니 국제 우편 관리소에 와서 찾아가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코드가 적힌 번호로 우체국에 전화해보니 당일은 늦었고 다음날부터 명절이니 연휴 끝나고 오라고 하길래 오늘 (28일)에서야 40여기로 떨어진 이스탄불 외각에 위치한 국제 우편 관리소로 갔습니다.

LOPE 와 trilogy 라는 두 종류의 화장품 이었는데 통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관이 안되면 왜 찾아가라고 기별을 했느냐 묻고 싶었지만 좋은 명절 잘 보냈으니 인심 쓰라고 했더니 결린 근거가 있으니 하나만 통과시키고 하나는 차압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두 개중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라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곳의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뉴질랜드는 추운 겨울이겠지만 이곳은 요즘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마치 명절과 함께 휴가철이 된 듯 잠잠하며 정치는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더니 국가가 대체로 조용합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요.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도 있지만 몇 명에게는 어려움도 당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기쁨(교회)을 구성하고 장소를 임대하여 0부(예배)를 드렸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은 소수의 현지인들과 교체하며 또 다른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행하시는 플랜을 찾아 동참하고자 합니다. 멀리 떨어진 뉴질랜드 갈보리 공동체의 중보에 감사를 드리며 이태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이스탄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길이 열리도록.
2.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가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